



정보격차 해소 위한 디지털 행사 '풍성'

올해 정보문화의 달은 '함께하는 디지털 세상'이라는 주제에서 나타나듯이 정보화 격차 해소와 올바른 인터넷 이용에 초점을 맞췄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은 6월 한 달을 인터넷 이용률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보화에서 소외된 계층과 날로 확산되는 인터넷 유해 정보에 대처하기 위한 대국민 홍보의 장으로 적극 활용했다. 이와 함께 정부 산하기관, 체신청, IT 관련기업, 정보나눔실천운동본부, 정보보호실천협의회 등 관련 단체와 시민단체도 총 출동해 범국민적 건전 정보문화 확산에 앞장섰다. 17회 정보문화의 달을 맞아 6월 한달 동안 펼쳐진 주요 행사를 소개한다.

글 권경희 기자 / 사진 이해성 기자

정보통신부가 정보화 촉진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매년 개최하는 정보문화의 달 행사가 6월 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4층 그랜드컨퍼런스룸에서 제 17회 정보문화의 달 기념식을 시작으로 한달 동안 대단원의 장을 펼쳤다.

6월 한달 간 전국에서 전시회와 학술행사, 경진대회 등 91개의 정보문화 행사가 펼쳐진 이번 정보문화의 달 행사는 정통부 산하기관과 시민단체, 통신업체 등 40여 기관이 참여해 국민들의 생산적인 정보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행사들을 다채롭게 선보였다.

3일 열린 기념식에는 진대재 정통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주요 인사와 정보통신 관계자 500여명이 참석했으며 국가 정보화 촉진에 기여한 공로자 55명에 대한 포상과 제16회 정보문화상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이 개최됐다.

이날 기념식에서 조민래 SK텔레콤 전무는 소년·소녀 가장에 PC를 무료로 보급하고 장애인전자도서관 건립을 지원하는 등 정보격차 해소에 공헌한 점을 인정받아 은탑산업훈장을 받았으며 신상철 한국전산원 단장은 전자정부 사업과 초고속정보통신 기반 구축 등 국가정보화에 공헌한 공로로 동탑산업훈장을 받았다. 또 임종인 고려대 교수는 근정포장을, 최현수 삼성SDS 상무와 김성수 온미디어 대표는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이밖에 김대연 윈스텍넷 사장 등 9명이 대통령표창을, 최성진 서울산업대 교수 등 11명이 국무총리표창을, 가수 이정현 양 등 30명이 정보통신장관 표창을 받았다.

또한 정보문화상대상은 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대표 배연창)가 대통령상을 받았고 정보문화진흥상은 김종무 국립특수교육원 연구사, 정보화교육상은 전수남 금빛평생교육봉사단 자원봉사자, 정보통신윤리상은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서울협의

회가 각각 선정돼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정보소외계층 정보화 대열 합류 행사 주안

기념식을 시작으로 펼쳐진 정보문화의 달 행사들은 특히 주제에 걸맞게 노년층·장애인 등 이른바 정보소외계층들에 정보화의 과실을 고루 나눠줄 수 있는 내용에 주안점을 뒀다.

우선 대표적인 정보화소외계층으로 꼽히는 장애인들에 정보화의 대열에 합류시키기 위한 다양한 행사들이 주목을 받았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은 3일 코엑스 대서양관에서 장애인정보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 대회는 장애인의 IT활용능력을 제고하고 정보사회에 대한 참여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전국규모로 펼쳐진 행사. 또한 장애인들에게 정보통신 보조기기와 특수 소프트웨어 제품·기술을 소개한 '2004 정보통신보조기기 전시회'도 같은 장소에서 5일까지 열렸다.

한국농아인협회는 24일 '청각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기술





시연 및 전시회'를 개최, 청각장애인의 정보화 참여와 접근노력을 촉진했다. 제주체신청이 4일 장애인 정보통신 현장견학을 실시, 전남체신청이 23일 장애인 정보검색대회인 '2004 장애인 한마음 전진대회'를 개최하는 등 전국 각 지역에서도 다양한 장애인 정보화 행사가 펼쳐졌다.

통신사들도 장애인 대상 검색대회와 PC교육 등을 실시했다. SK텔레콤은 23일 코엑스에서 전국 특수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장애청소년 정보검색대회'를 개최했고 KT는 13일 광주 세광학교에서 장애인 대상 PC교육을 진행했다.

정보화를 통해 노년층에 새로운 삶의 활력을 제공할 정보문화 행사들도 잇따라 열렸다. 정보문화진흥원과 서울체신청 등 8개 체신청은 6월 한달동안 55세 이상 노인정보화교육 수료생 등을 대상으로 한 '2004 어르신 정보활용대회'를 개최, 실버 정보화 고수를 선발했다. 또한 노인생활과학연구소는 26일 부산 KT 대강당에서 노인들의 컴퓨터 작품을 전시하고 노년층의 정보문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디지털 실버 발언대' 행사를 개최했다.

초등학생 정보검색대회 등 어린 정보화 꿈나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정보문화 행사들도 풍성하게 열렸다. 우선 서울체신청은 12일 서울·경인지역 사회복지시설 초등학생 정보검색대회를, 19일에는 소년소녀가장 정보검색대회를 잇따라 실시함으로써 정보화에서 소외되기 쉬운 어린이들의 정보화 교육에 대한 관심을 촉진 시켰다.

전북체신청도 17일부터 25일까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컴퓨터와 정보활용능력 배양을 위한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전남체신청도 19일부터 오는 9월 11일까지 학생들의 컴퓨터이용능력 향상과 건전한 사이버문화조성을 위한 차원에서 초·중·고등학교



교 컴퓨터경진대회를 개최했다. 강원체신청도 23일 산간벽지 어린이 정보화 경진대회를, 제주체신청은 27일부터 이틀간 도시지역 어린이 정보화 견학을 실시했다. 부산체신청도 27일부터 이틀간 LG청소년 과학관 등에서 산간벽지 어린이초청 정보화견학에 나섰다.

KT는 19일 KT충청권 고객센터로 소년소녀가장들을 초청, 최첨단 인터넷데이터센터 견학을 실시했고, SK텔레콤은 6일부터 27일까지 서울랜드 이벤트홀에서 저소득 가정 어린이와 장애어린이를 초청해 디지털놀이터 체험행사를 마련했다.

가족단위로 참여할 수 있는 행사들도 풍성하게 열렸다. 충청체신청은 30일까지 21세기 지식정보사회의 건전한 정보화가족상정립을 위한 가족홈페이지 공모전을 실시했다. 인천정보산업진흥원도 8일 인천 정보가족 선정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 또한 강원체신청은 24일 직접 컴퓨터를 조립정비하는 교육을 통해 정보문화 확산에 기여했고, 컴퓨터를 취약계층에 보급해 이웃사랑운동을 실천하는 '함께나누는 사랑의 컴퓨터 DIY' 행사를 벌였다. 이밖에 부산체신청이 15일 바쁜 가사 때문에 정보화에서 소외되기 쉬운 주부들을 대상으로 '주부 정보화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규모·내용 예년과 차별

올해 정보문화의 달은 규모나 내용 면에서 예년과 차별화 됐다. 우선 참여 기관의 확대 등으로 지난해 70여 개에 그쳤던 행사가 91개로 늘어났다.

주간 단위로 테마를 정해 집중적으로 홍보에 나선 것도 눈에 띈 대목. 이에 따라 행사 주요 추진 시기인 6월 1일부터 3주를 각각 '정보격차해소', '건전정보이용', '정보보호 주간'으로 정했다.



1일부터 6일까지 첫 주에는 '정보통신 보조기기 전시회'가 가장 관심을 모았다. 국내에서 올해 처음 열린 이 전시회는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정보통신 특수기기와 특수 소프트웨어 제품, 기술 등이 소개됐다. 특히 국내 관련 전문기업이 30여 개 이상 참여해 국산 기술로 개발된 제품의 시장 활성화를 도모했다.

두 번째 주인 건전정보 이용 주간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주축이 돼 지난해에 이어 깨끗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과 각종 행사가 펼쳐졌다. 5일 'e클린 코리아' 개막 선포식에는 정부 관계자, 홍보대사, 시민단체, 일반인 등 500여 명이 참석해 e클린 코리아 캠페인 선언문을 낭독하고 홍보대사를 위촉했다.

7일부터 19일까지 2주일간 진행된 '불법·청소년 유해정보 신고대회'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학부모정보감시단, 사이버테러 대응센터, 한국소비자보호원 등에 음란, 도박, 자살, 스팸, 명예 훼손, 성폭력 등 각종 불법 인터넷 유해정보를 집중 신고토록 해 건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에 일조했다.

정보기술전문가협회가 주관한 '제 2차 정보통신윤리포럼'(24일)에서는 정보통신 역기능 방지와 정보사회 문화적 합의 이슈를



도출해내기 위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됐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은 6월 한달 동안 전국 일선 학교와 청소년 상담 센터에서 어린이, 청소년, 학부모, 교사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인터넷중독 예방 교육 및 현장 상담'도 실시했다.

스팸 메일과 바이러스, 해킹 등 정보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도 다각도로 전개됐다. 14일부터 20일까지 정보보호 주간에는 정보보호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확산에 주력했다.

14일 고려대에서 열린 정보보호주간선포식에는 정보보호실천협의회 회원, 대학생, 주부 등 300여명이 참석해 정보보호 실천수칙 홍보책자 등을 공유하고 정보보호 홍보 대사로서의 왕성한 활동을 다짐했다. 15, 16일 온라인에서 진행된 '정보보호올림피아드'는 해킹, 바이러스의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한 온라인 기술경진 대회로 전문가는 물론 일반인들도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대회가 마련됐다.

15일 시상식이 개최될 예정인 '초·중·고생 표어·포스터 공모전 및 전시회'는 정보보호를 주제로 한 표어, 포스터 공모전을 통해 학생층의 인식을 제고했다. 특히 16일부터 이달 말까지 시청역 등 2개 지하철 역에서 수상작을 전시함으로써 일반인들의





경감식도 일깨웠다.

IT테크노마트 · SEK 등 큰 행사 연이어

정보문화의 달을 맞이해 IT테크노마트, SEK 등 국내 굵직한 행사가 삼성동 코엑스에서 연이어 펼쳐져 기술의 산실, 삼성동을 크게 달구었다. 국내 최대의 IT(정보기술) 관련 기술거래 전시회인 'IT 테크노마트 2004'는 1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도 양홀에서 개막됐다.

정통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연구진흥원(IITA)이 주관한 이 행사에는 130여개 업체 · 대학 · 연구소가 참가, 18일까지 4일간 250여개의 관련기술을 선보였다.

올해 행사에는 전국 39개 대학IT연구센터(ITRC)와 86개 중소벤처기업이 참여해 관련 산업체와 활발한 기술이전 상담이 이뤄졌다. 특히 전시회에서는 정통부가 차세대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중인 홈네트워크 · 차세대이동통신 · 광대역통합망(BcN) · 지능형 서비스로봇 · 차세대 PC 관련 기술도 대거 선보였다.

IITA측은 전시관내에 상담부스를 마련, 기술 출품 업체들과 일반 기업들의 기술이전 상담을 지원했다. 행사기간 동안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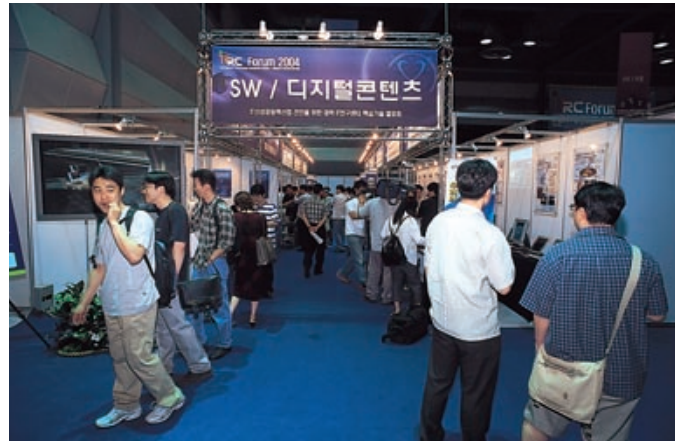
최근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중인 IT 중소벤처기업의 인수합병(M&A) 관련 워크숍도 함께 열렸다.

IT테크노마트에 연이어 국내 최대의 IT 전문 전시회인 SEK2004가 6월22일부터 25일까지 삼성동 코엑스 태평양관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회는 무엇보다 수동적 행사에서 능동적 기회의 장으로 한단계 업그레이드 됐다는 평을 받고 있다. 전시된 제품을 보는 차원을 넘어 관람객이 직접 참여해 현재 IT 업계의 기술 흐름을 배우고 이를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SEK2004는 10개국 180여 개 업체가 총 3,300평의 면적에 600부스 규모로 참가했다. 전반적인 전시회가 퇴조 추세를 보이는 것에 비해 SEK2004는 지난해에 비해 질적인 면에서는 물론 양적인 면에서 확연하게 발전한 것.

이번 SEK2004에는 KT, 삼성전자, LG전자 등 한국을 대표하는 IT 기업은 물론 마이크로소프트, IBM, HP, 시스코 시스템즈, EMC 등 다국적 IT 기업이 첨단 정보통신 기술에 대한 경연을 펼쳤다. 레인콤, 한글과컴퓨터 등 국내 스타 벤처 역시 세계 수준의 제품을 선보였다.





또 콘퍼런스 등 다양한 부대 행사를 통해 행사의 깊이를 더했다. 전시회 기간동안 콘퍼런스룸에서는 메인 컨퍼런스인 'IT21 컨퍼런스' 이외에 '전자정부 컨퍼런스' '스토리지 포럼 세미나' 'U-City 비전과 지자체 전략 세미나' '소프트웨어, 디지털콘텐츠 투자마트' '캐나다 IT 상담회' 등의 행사가 동시에 개최됐다.

IT21 컨퍼런스는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21세기 정보기술'을 주제로 임베디드 SW, 홈네트워크, 디지털콘텐츠, 차세대 이동통신, 텔레메틱스, 디지털TV, IT SoC, 차세대 PC, 지능형 로봇 등 9대 IT신성장 동력 산업분야를 집중 조명하는 IT분야 국내 최대의 학술행사다.

또 행정자치부가 후원하는 전자정부 콘퍼런스 2004가 '효율적인 전자정부 구축방안'을 주제로 22일 열렸고 스토리지 연구회가 공동 주관하는 2004 스토리지 포럼은 '안정적인 데이터 관리 및 업무효율 향상'을 주제로 23일 개최됐다.

24일 열린 캐나다 IT상담회에서는 캐나다의 산업계, 학계, 법조계, 정부인사 등으로 구성된 캐나다 IT사절단과 국내 기업간의 교류 상담의 장이 제공됐다. 이와 함께 23일과 24일 양일간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주관으로 열린 소프트웨어 디지털콘텐츠 투자마트를 통해서도 국내 주요 벤처캐피털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망 SW 기업들의 공개 IR 기회가 제공됐다.

SEK2004 전시회장은 7개의 특별 전시관과 일반전시관으로 구성됐다. 메인 테마관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주축이 된 'IT신성장동력관'을 비롯해 '소프트웨어벤처관' '신SW 수상작관' '정보통신지원관' '스토리지관' '닷넷관' '국산원천기술관(모바일솔루션)' 'IP컨버전스관' 등이 특별관으로 꾸며졌다.

이번 SEK2004에는 일반 소비자의 생활환경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새로운 제품이 대거 선보였다. 휴대형 멀티미디어 기기나 네트워크 모니터 등 첨단 제품과 증명사진 전용 인화지 등 아

이디어 상품이 그 주인공. 특히 세계 MP3플레이어 시장을 주도하는 레인콤은 최대 규모의 부스를 마련해 무려 27종의 신제품을 전시했다.

SEK2004의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는 한글과컴퓨터와 한국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 대결. 한글과컴퓨터는 기능을 강화한 한컴오피스를 전면에 내세워 한국마이크로소프트의 독주를 저지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으며 한국마이크로소프트도 이에 뒤질세라 MS오피스를 이용한 비즈니스 컴퓨팅 환경의 미래를 제시했다.

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은 전국 소프트웨어타운과 SW지원센터의 지원업체 중 유망 SW벤처기업들이 참여하는 '소프트웨어벤처관'을 구성하고 차세대 성장동력의 핵심동력인 SW산업의 현주소를 보여줬다.

이번 SEK은 예년과 달리 국내외 주요 스토리지 업체를 중심으로 '스토리지 포럼관'이 별도로 마련됐다. 스토리지가 기업의 IT 자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스토리지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가 관심 사안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스토리지 포럼관 참여 기업들은 기업 내 스토리지 자원에 대한 통합 방안을 집중 소개했다. 통합의 구체적인 방법론은 가상화나 자동화 기술, 정보의 생성과 소멸 주기에 맞춰 적합한 스토리지를 적용하자는 '정보생명주기관리(ILM)' 등이다.

KT관과 노텔, 시스코 등으로 이뤄진 네트워크관도 주목을 끌었다. 유선과 무선, 음성과 데이터, 통신과 방송의 서비스와 네트워크가 급속히 통합되는 시장과 기술의 현주소가 일목요연하게 펼쳐졌다.

KT는 유무선 통합서비스인 네스팟 스윙과 원폰 서비스 듀, 초고속인터넷 기반 홈네트워크 서비스인 홈엔 등을 선보였다. 노텔네트웍스와 시스코시스템즈는 음성과 데이터의 통합추세를 반영한 인터넷전화를 알리는데 주력했다. 